국제규모 '광주아트페어' 열린다

9월 제8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 학술대회 등 종합예술축제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비엔날레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고품격 아트페어를 창설한다. 그동안 이 지역 미술계 안팎에서 개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아트페어'(가칭)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최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재단은 아트페어 전담팀인 '특별프로젝트부'(부장 조인호)를 신설하고,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인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아트페어가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림만 파는 수준을 넘어 현대미술의 흐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예술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비엔날레와 '시너지' 효과'=화랑들이 한곳에 모여 미술품을 사고파는 미술 장터인 아트페어는 비엔날레와 더불어 세계 미술 흐름을 주도하는 양대 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광주아트페어의 사전 준비 작업을 벌였고, 최근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맡아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광주아트페어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 개막에 맞춰, 오는 9월 10억여원(국·시비 5억, 민간투자 5억)을 들여 5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광주를 찾는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아트페어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30여 명 안팎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며, 현재 조직위 인선을 위해 국내 유명 화랑 관계자 등을 접촉하고 있다.

광주시가 재단에 아트페어 개최를 맡긴 것은 그동안 쌓아 온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성과와 위상 때문이다.

특별 프로젝트부 신설
국내외 유명 화랑 접촉
유럽·홍콩·일본 등지에 전세기 띄워 유치 계획

재단 관계자는 "단순히 작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학술대회, 퍼포먼스 등이 곁들어진 종합 예술 축제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술성이 담긴 미술 장터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해외 컬렉터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명 화랑 참여가 성패 관건=광주아트페어가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명 갤러리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각국의 컬렉터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트페어는 국내에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서울오픈아트페어(SOAF), 블루닷아시아, 아트대구 등 20여 개에 달한다. 또 아시아 각국이 앞다퉈 아트페어를 열고 있어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경기침체로 아트페어 매출액도 크게 줄고 있다. 서진수미술시장연구소의 '2009년 미술시장 결산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19개의 아트페어 대부분이 전년대비 10%가량 판매액이 감소했다.

광주아트페어의 성패도 국내외 유명 갤러리들을 데려와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을 판매하느냐에 달려있다. 작품 거래가 이뤄져야 화랑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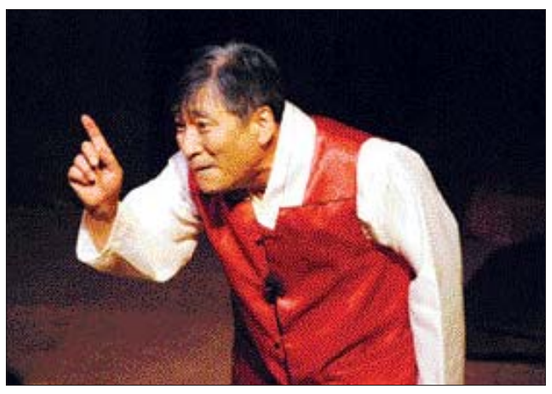
재단은 정부의 미술은행과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공공기관이 광주아트페어에서 일정액의 작품을 사주는 방법과 유럽, 홍콩, 일본 등지에 전세기를 띄워 유명 해외 화랑과 컬렉터를 유치해 판매액을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오는 9월 국제규모의 '광주아트페어'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서울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미국 나들이

6월 시애틀 등서 5차례 공연
27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도



'생의 든든한 버팀목, 아버지를 위하여….'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100회 넘게 무대에 올려온 연극인 박윤모(58)씨가 2010년에도 우리 시대 아버지의 이야기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 서울공연도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1998년 초연된 '아버지'는 소설가 한승원의 유일한 희곡으로 고희연을 맞은 김오연이 11남매를 키워온 사연들을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낸 작품이다.

힘들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눈물과 웃음이 함께했던 시절을 돌아보며 아버지가 쏟아내는 절절한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화제를 모았었다.

1시간 30분 동안 홀로 무대에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모노드라마는 만만찮은 내공이 필요한 작업. 87회 공연 후 10여년간 휴지기를 가졌던 박씨는 2008년 다시 작품을 추겨들었고 그해 100회 공연을 넘겼다. 지난해에도 어김 없이 '아버지'는 관객들을 찾아왔고 지금까지 117회가 공연됐다.

박씨는 오는 6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서북미문화재단 주최, '2010 국제우정축제'에 참가해 타코마, 시애틀 시 등에서 5회 공연을 갖는다. 향수에 젖어 있는 교포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는 서울 예술의 전당 무대에도 선다. 지역 연극인이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는 것은 드문 일로 27일부터 31일까지 모두 7차례 공연을 갖는다. 1998년 대학로 공연 후 두번째 서울나들이다. 또 2~3월에는 광주 궁동예술극장 상설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일요일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22일 밤 MBC-TV '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에 출연, 자신의 연극인생에 대해 들려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8~30일 5·18문화센터 민주홀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28일~30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서울 교육 극단 '유리 가면'이 무대에 올리는 '신데렐라'는 프랑스 동화작가 C. 페로의 원작을 어린이 뮤지컬로 옮긴 작품으로 신나는 춤과 노래, 이야기가 어우러진 뮤지컬이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재투성이 소녀 신데렐라는 가족들이 모두 무도회에 참석하러 떠나지만 집안 일을 하느라 여전히 바쁘다.

신데델라의 착한 마음씨를 알아챈 요정이 찾아와 황금마차와 유리구두를 마련해주자 신데렐라는 왕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만다. 티켓 가격 1만 5천원, 9천원. 문의 1688-38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늦깎이들의 아름다운 도전

지난 19일 오후 광주일보 문화부에 한 중년여인이 찾아왔다. 올해 본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된 정보고씨(48)였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신춘문예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에서 온 그녀에게 축하인사를 건네자 18살 소녀처럼 수줍어했다. "지난해 연말 당선통지 전화를 받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었다"는 정씨는 당선소감에서 '8년 전의 일'을 들려줬다.

지난 2002년 여름 그녀는 문학공부를 하는 지인들과 함께 대전 시립미술관 앞마당에서 열린 공연을 보러 갔다. 그리스 신화의 '미궁'을 소재로 한 연극이었는 데 공연 도중 한국축구가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이 끝나자 일행 중 한 작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축구가 8강에 진출한 것은 신화입니다."

정씨는 "이번 신춘문예 당선으로 '그 신화'를 체험하고 있다"면서 "뒤늦게 문단에 나와 언제 책이 나올까?"라는 주위의 우려를 씻도록 창작에 매진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그녀에게 있어 이번 신춘문예 당선은 각별하다. 학창시절 문학소녀였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후 대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결혼과 육아로 바쁜 일상에서도 대전대 문예창작학과에 진학해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그리고 큰 애가 대학에 들어간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쓰기에 매달렸다. "문학은 삶의 미궁을 빠져나오게 해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였다"는 정씨는 30여년 간 '실을 놓치지 않은' 열정 덕분에 마침내 소설가의 꿈을 이뤘다.

늦은 나이에 '꿈'을 이룬 또 한명의 주부가 있다. 최근 광주일보에 보도된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황유정(48)씨가 주인공이다. 10년 전 아이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세월 가는 줄 모르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정체성에 회의를 품게 됐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황유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지난 2002년, 우연히 광주시립미술관의 미술강좌를 듣고 '예술의 매력'에 푹 빠졌다. 이후 공부에 욕심이 생긴 그녀는 지난 2004년 조선대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를 전공했다. 학예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스토리'가 화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자신들의 꿈을 이뤘다는 점이다. 특히 뭔가 시작하기엔 '어중간한' 불혹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는 사실은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40~50대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들에게 있어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었다. 혹여 나이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시인 정희성의 '태백산행'를 권한다.

"눈이 내린다/ 기차 타고 태백에 가야겠다/배낭 둘러메고 나서는데/등뒤에서 아내가 구시렁댄다/지가 열 일곱 살이야 열 아홉 살이야.(…) 산등성 숨차게 올라가는데/칠십 고개 넘어선 노인네들이 여보 젊은이 함께 가지/앞지르는 나를 불러 세워 올해 몇이냐고/쉰 일곱이라고/그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좋을 때다/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한다는/태백산 주목이 평생을 그 모양으로 (…)/좋을 때다 좋을 때다/말을 받는다. (이하 생략)"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